

# “태극기 거꾸로 뒀어”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지난달 23일 개막해 지난 8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참가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감동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도 관중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 “애국심도 금메달감”



▲ 기념사진촬영 전 신유빈(왼쪽)이 전지희가 들고 있던 태극기를 바로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탁구의 신동 신유빈(19)이 전지희(31)와 함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복식 정상에 오른 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뒤집힌 태극기를 바로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팬들은 “애국심도 금메달감”이라며 호평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2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박수경 조에게 게임스코어 4-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후 두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신유빈은 태극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건곤 감리 위치를 바로잡았다. 중국에서 귀화한 전지희가 태극기를 뒷면이 앞으로 가게 집어 든 탓에 좌우 문양이 반대로 바뀌어 있었던 것. 두 사람은 바로 잡은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으며 손으로 브이(V) 포즈를 취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 “달콤한 K-드라마의 한 장면”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장에서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행동이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항저우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개



▲ 탁구 혼합 복식 시상식에서 장우진(오른쪽)이 전지희의 영건 메달 끈을 정리해 주고 있다. 임종훈(아래 왼쪽)이 장우진의 행동을 따라 신유빈의 옷깃을 다듬어 주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최된 시상식에서 장우진(28)-전지희 조와 임종훈(26)-신유빈 조는 준결승전에서 중국 대표팀에게 각각 패하면서 동메달 단상 위에 나란히 올랐다.

이때 갑자기 관중석에서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장우진이 전지희의 목 뒤에 영건 메달 끈을 정리해 주자 팬들이 환호한 것이다. 뜻밖의 환호에 장우진과 전지희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상황을 알아채고 이내 멋쩍은 듯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어 소개된 신유빈과 임종훈도 동시에 볼 하트를 그리며 세리머니를 했고 또 박수갈채가 터지자 신유빈이 임종훈에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후 메달과 꽃다발을 받아든 임종훈은 장우진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신유빈의 옷깃을 다듬어 주는 척했고 시상대는 웃음바다가 됐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알콩달콩 시상식이다”, “시상식이 설렘 일인가”, “달콤한 K-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 “일본 이길 수 있는 대표팀 만들어 주길”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3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준결승에서 일본에 패한 후 주장 김단비(33)가 후배들에게 “다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단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도 알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고 최고가 아니다.”라며 “저도 안일한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정체가 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은 이날 일본에 점수 차와 경기 내용 면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며 58-81로 완패했다.

김단비는 “저는 일본을 이길 때도 뛰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을 당한 선수”라고 자책했다. 실제로 한국은 김단비가 프로로 입문했던 2008년 정도만 하더라도 일본에 비해 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역전당했다.

## ■ 6번, 4번 레인에서 뛰어서



▲ 여자 육상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의 린위웨이가 은메달을 획득한 자국 동료 선수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4 텐안면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연히 연출됐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100m 허들 결승전 직후 트랙 위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 린위웨이가 은메달리스트인 자국 동료 우옌니를 포옹했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획득한 후 두 선수가 포옹하는 훈훈한 장면은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의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에도 게재됐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이후 돌연 삭제됐다. 6번 레인에서 뛴 린위웨이가 유니폼에 숫자 ‘6’을 달고, 4번 레인에서 뛴 우옌니가 유니폼에 숫자 ‘4’를 단 채 포옹하면서 우연히 ‘6·4’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중국서는 텐안면 사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여론을 통제한다. 숫자 ‘6’과 ‘4’는 1989년 6월 4일 중국 당국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검열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 149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9				2		6	3	
5				8	6			
	3		4		7			8
		1	5					6
6					4	7		
		7					1	5
				4		2		6
3	2							
	6	9	2		8			1

### 날말퍼즐 정답

1방	한	2모		3일	변	4도	
주		5조	롱	박		6배	7달
		8수	리	이			력
		수		9일	상	10화	
		11강	다	12구			플
13잠				명	14구	이	
15행	16실		17가	락	지		18매
	19족	집	게		20가	창	력